

# 酒嗽에 對한 文獻的 考察

李昇祐 · 金聖炫 · 韓相桓

## I. 緒 論

咳嗽證에 對한 記錄은 紀元 前 2-3 世紀 傾의 黃帝內經<sup>1, 2)</sup>의 各 篇에서 言及된 後로 始作되었다.

韓醫學에서 咳는 有聲無痰으로 肺氣가 損傷되어 不清한 것이며, 嗽는 有痰無聲으로 脾濕이 動하여 痰이된 所致이다. 咳嗽는 有痰而有聲한 것으로 肺氣가 損傷되고 脾濕이 動하여 發生함으로써 咳嗽가 兼發하게 되는 것이다<sup>3, 4)</sup>.

西洋醫學에서의 咳嗽는 氣管支 內에 過度한 粘液生産量으로 過量의 喀痰이 排出되는 것이니 氣管支 粘液線의 增加와 小氣道內의 慢性炎症性 變化에 依한 氣道狹窄으로 發生한다<sup>5-7)</sup>.

咳嗽를 誘發하는 要因에는 여러가지 原因이 있으나 飮食物을 攝取함에 있어서 그 常道를 잃으면 人體에 害를 끼쳐서 疾病이 發生되는 重要한 原因이 된다. 咳嗽도 여기에 屬하며 이것은 痰飲이 主 原因이 된다. 痰飲은 體內의 水液이 運化하지 못하고, 停留되어 人體의 一部位에 病理的產物을 生成하여 나타나는 것이다<sup>8)</sup>.

酒嗽의 原因은 飮酒過多에 依하며, 그 病理 機轉은 酒의 性이 大熱하여 酒에 傷하면 引飮冷하고, 熱과 더불어 胃中에 凝結되어 不散成濕으로 痰飲을 生成하여서 肺를 傷하게 되므로 發生된다. 卽 脾는 水濕을 主管하며, 肺는 肅降을 主管하고 水導를 通調하는데, 脾의 運化機能이 失調되어 水濕을 運化시키지 못할 境遇에는 水濕이 한 곳에 모

여 痰飲을 形成하고, 그 影響이 肺의 宣發 肅降機能에 미침으로써 咳嗽를 發生하게 된다<sup>9)</sup>.

이에 本人은 酒嗽의 原因과 症狀 및 治療에 對하여 調査하고 分類하여, 다음과 같은 知見을 얻었기에 이에 報告하는 바 이다.

## II. 本 論

### 1. 《金匱要略》<sup>10)</sup>

因 飮酒過度  
症 酒客咳者 必致吐血

### 2. 《丹溪心法》<sup>11)</sup>

因 飮酒傷肺  
症 痰嗽  
治 青黛 瓜薑 蜜丸  
以竹瀝煎紫蘇 葶汁 瓜薑杏連丸

### 3. 《醫學入門》<sup>12)</sup>

因 酒傷食積  
症 痰氣衝胸 腹滿  
治 香附瓜薑青黛丸

### 4. 《赤水玄珠全集》<sup>13)</sup>

因 酒積有痰  
治 白龍丸 (丹溪)

5. 《張氏醫通》<sup>14)</sup>

因 飲冷熱酒 傷肺致嗽  
症 咳嗽 咽痒 痰多唾血 喘急 脇痛 不得  
安臥  
治 改定紫莞茸湯

6. 《醫門寶鑑》<sup>15)</sup>

因 酒後引飲冷與熱 凝於胃中不散而成痰  
治 瓜萆杏連丸

7. 《東醫寶鑑》<sup>16)</sup>

因 酒性大熱 因傷引飲冷與熱凝於胃中不  
散而成濕  
症 痰作咳嗽  
治 青黛 瓜萆 蜜丸  
以竹瀝煎紫蘇 薑汁 瓜萆杏連丸

8. 《東醫肺系內科學》<sup>17)</sup>

因 酒性은 大熱하여 酒에 傷하면, 引飲  
冷하고 熱과 더불어 胃中에 凝結되  
어 不散而成濕하여 故로 痰作咳嗽한  
다.  
治 瓜萆杏連丸 蜂薑丸

9. 《醫學綱目》<sup>18)</sup>

因 夏暑大熱 或醉飲冷酒  
酒性大熱 不宜大飲 蓋酒味熱而引飲  
冷與熱凝於胸中不散而成濕 故痰作矣  
症 痰濕不止 隔不利  
治 甚者吐之 後與五苓甘露勝濕去痰之劑  
形肥脈緩痰滑者：白朮散  
因 酒積有痰  
治 白龍丸

因 飲酒傷肺痰嗽  
治 青黛 瓜萆 蜜丸  
以竹瀝煎紫蘇 薑汁 瓜萆杏連丸

10. 《醫學正傳》<sup>19)</sup>

因 痰嗽因酒傷肺  
治 青黛 瓜萆 蜜丸  
以竹瀝煎紫蘇 薑汁 瓜萆杏連丸

### III. 考 察

咳嗽은 呼吸器 疾患 中에서 가장 많이 나  
타나는 症狀으로, 起源은 紀元 前 2-3 世紀  
頃에 쓰여진 黃帝內經의 各篇에서 始作되었  
다. 一般的으로 咳嗽의 定意를 살펴보면 咳  
는 有聲而無痰으로 肺氣가 損傷되어 不利한  
것이며, 嗽은 有痰而無聲으로 脾濕이 動하  
여 痰이 된 所致이다. 咳嗽은 有痰而有聲한  
것으로, 肺氣가 損傷되고 脾濕이 動하여 咳  
嗽가 發生하므로 理氣·祛痰·潤肺 等의 方  
法으로 治療하였다.

咳嗽의 種類에는 風寒咳嗽·痰飲咳嗽·火  
鬱咳嗽·勞嗽·肺脹의 區分이 있으며, 《東  
醫寶鑑》에는 咳嗽를 十六種으로 區分하여  
寒嗽·熱嗽·濕嗽·鬱嗽·勞嗽·食積嗽·氣  
嗽·痰嗽·乾嗽·血嗽·酒嗽·久嗽·火嗽·  
夜嗽 및 天行嗽로 나누었으며, 또 午後嗽·  
夜嗽·五更嗽·暴嗽·卒咳嗽·久嗽 等으로  
咳嗽를 分類하였다.

咳嗽의 原因으로는 風·寒·暑·濕·燥·  
熱(火)의 六氣로 因한 外因과 臟腑機能失調  
로 因한 內因으로 나누어 진다.

이들 中 酒嗽은 飲酒過度에 依하여 脾氣  
不和로 濕이 停滯되어 痰이 生한 結果로 肺  
氣가 不宣하여 發生되며, 그 原因 症狀 및

治療에 對하여 考察하면 다음과 같다.

酒嗽의 原因에 대하여 朱<sup>11)</sup> 張<sup>14)</sup> 樓<sup>18)</sup> 虞<sup>19)</sup>는 “飲酒傷肺”라 하였고, 周<sup>15)</sup> 許<sup>16)</sup> 李<sup>17)</sup> 樓<sup>18)</sup>는 “酒後引飲冷與熱 凝於胃中不散而成痰”이라 했으며, 李<sup>12)</sup> 孫<sup>13)</sup> 樓<sup>18)</sup>는 “酒積有痰”이라고 하였다.

酒嗽의 症狀에 對해 朱<sup>11)</sup>는 痰嗽, 李<sup>12)</sup>는 痰氣衝胸 腹滿, 張<sup>14)</sup>은 咳嗽咽痒 痰多唾血 喘急脇痛不得安臥, 許<sup>16)</sup>는 痰作咳嗽, 樓<sup>18)</sup>는 痰濕不止 隔不利라 하였다. 原因에 따른 症狀을 分類하면, “飲酒傷肺”에 依한 症狀은 痰嗽 咳嗽咽痒 痰多唾血 喘急脇痛 不得安臥 등이 있고, “酒後引飲冷與熱 凝於胃中不散而成痰”에 對한 症狀으로는 痰作咳嗽 痰濕不止 隔不利 등이 있으며, “酒積有痰”에 依한 症狀은 痰氣衝胸 腹滿 등이 있었다.

酒嗽의 治療에 對하여 朱<sup>11)</sup> 樓<sup>18)</sup> 虞<sup>19)</sup> 周<sup>15)</sup> 許<sup>16)</sup> 李<sup>19)</sup>는 瓜蒌杏連丸, 張<sup>14)</sup>은 改定紫菀茸湯, 李<sup>17)</sup>는 蜂薑丸, 樓<sup>19)</sup>는 白朮散, 李<sup>12)</sup>는 香附瓜蒌青黛丸, 孫<sup>13)</sup> 樓<sup>18)</sup>는 白龍丸을 主張하였다. 原因에 對한 治療로는 “飲酒傷肺”에는 瓜蒌杏連丸·改定紫菀茸湯, “酒後引飲冷與熱凝於胃中不散而成痰”

에는 瓜蒌杏連丸·蜂薑丸·白朮散, “酒積有痰”에는 香附瓜蒌青黛丸·白龍丸을 記述하였다 < TABLE 1 參照 >.

#### IV . 結 論

以上 總 十 種의 文獻을 考察하여 酒嗽에 對한 原因 症狀 및 그 治療에 對하여 調査 分類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酒嗽의 原因은 飲酒傷肺·酒後引飲冷與熱 凝於胃中不散而成痰·酒積有痰의 三種으로 區分된다.
2. 酒嗽의 發生機轉은 酒性은 大熱하여 酒에 傷하면, 引飲冷하고 熱과 더불어 胃中에 凝結되어 不散而成濕하여 故로 痰作하고, 傷肺하여 肺氣不宣하므로 咳嗽한다.
3. 酒嗽의 症狀은 痰作咳嗽를 主症으로 하고, 痰嗽 咳嗽咽痒 痰多唾血 喘急脇痛

< TABLE 1 >

原 因	症 狀	治 方
飲酒傷肺	痰嗽 咳嗽咽痒 痰多唾血 喘急脇痛 不得安臥	瓜蒌杏連丸·改定紫菀茸湯
酒後引飲冷與熱 凝於胃中不散而成痰	痰作咳嗽 痰濕不止 隔不利	瓜蒌杏連丸·蜂薑丸·白朮散
酒積有痰	痰氣衝胸 腹滿	香附瓜蒌青黛丸·白龍丸

不得安臥 痰濕不止 隔不利 痰氣衝胸 腹滿 等の 症狀이 나타난다.

4. 酒嗽의 治療에는 瓜蔓杏連丸 · 改定紫莞茸湯 · 蜂薑丸 · 白朮散 · 香附瓜蔓青黛丸 白龍丸 等이 있다.

## 參 考 文 獻

- 1) 楊維傑篇 : <黃帝內徑 素問譯解>, 서울, 成輔社, 1980
- 2) 楊維傑篇 : <黃帝內徑 靈樞譯解>, 서울, 成輔社, 1980
- 3) 虞 搏 :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P 101.
- 4) 許 浚 :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66, P 467, 473.
- 5) 姜允皓 : 東醫臨床內科, 서울, 書苑堂, 1990, P 151-156.
- 6) 李文鎬, 許仁穆, 全鍾勳 : 內科學, 서울, 學林社, 1986, 卷下, P 1554-1555.
- 7) 李宇柱 : 藥理學講義, 서울, 鮮一文化社, 1984, P 108, 109, 111, 402-404, 410-412.
- 8) 楊醫亞 : 中醫學問答,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上 P 54~56, 108-109, 116, 170-171, 227, 291-293, 322.
- 9) 金完熙 :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85, P 268-311, 324, 340-341
- 10) 張仲景 : 金匱要略精解, 서울, 韓林院, 1986, p 53.
- 11) 朱震亨 : 丹溪心法 附餘, 서울, 大星文化社, 1989, 卷3 p 15-16.
- 12) 李 挺 : 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90, 傷寒雜病篇 p 66-67.
- 13) 孫一奎 : 赤水玄珠全集, 臺北, 人民衛生出版社, 1988, p 281-282.
- 14) 張 璠 : 張氏醫通,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90, p 160.
- 15) 周明新 : 醫門寶鑑, 서울, 醫聖堂, p 140.
- 16) 許 浚 :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0, 雜病篇 p 109.
- 17) 李珣九 : 동의폐계내과학, 서울, 민선출판사, 1990, p 144.
- 18) 樓 英 : 醫學綱目, 서울, 一中社, 1984, p 1115-1118.
- 19) 虞 搏 :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p 97.

# A B S T R A C T

The bibliographical study on the cause, symptom and treatment of Ju-Su ( 酒嗽 )

O.M.D. Lee, Seung Woo  
Dept. of Oriental internal  
Graduate School of  
Won Kwang University  
Directed by prof. Han Sang Whan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cause , symptom and treatment of Ju-Su ( 酒嗽 ) by referring to 10 literatur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factors causing Ju-Su( 酒嗽 ) are drinking, gastric fever and damyeum( 痰飲 ) made by drinking.
2. The symptom of Ju-Su ( 酒嗽 ) is as follows.  
stimulus feeling in throat  
cough  
pain of sub-ribs  
vomiting blood
3. The drugs of Ju-Su ( 酒嗽 ) is as follows.  
gwaruhangyunhwn ( 瓜萋杏連丸 )  
gaejungjawanyongtang ( 改定紫莞茸湯 )  
bongganghwan ( 蜂薑丸 )  
bakchulsan ( 白朮散 )  
hyangbugwaruchungdaehwn ( 香附瓜萋青黛丸 )  
bakyonghwan ( 白龍丸 )